

# 정화의 작은이들



## 재속 프란치스코 토론토 성 요한 비안네 형제회 Secular Franciscan Order St. John Vianney Fraternity of Toronto

연락처: 22 Royal Palm Dr, Thornhill, ON L4J 5R3  
Tel: 905-889-6518 E-Mail: sunlee333@hotmail.com  
월례회;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전 10:00 시

제 48 호

7 월 형제회 소식

2009 년 7 월 18 일

### 오늘 월례회 순서

- 오전 10 시 - Projector/ 성가
- 오전 10 시 15 분 - 월례회
- 오전 11 시 - 미사
- 오전 11 시 50 분 - 리따 수녀님 영성 강의
- 오후 12 시 30 분 - 월례회(계속)
- 오후 1 시 - 친교

### 형제회 소식

- 8 월 월례회는 연례피정 관계로 생략하며 다음 월례회는 9 월 26 일(토), 한맘 성당에서 오전 10 시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8 월 달 회보는 휴간합니다.

- 지난 7/10, 평의회에서 승인된 입회, 유기 및 종신 서약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회자 (8 명):** 전방영(루피나), 전상훈(프란치스코), 전영혜(글라라), 황숙희(데레사), 박혜숙(레지나), 서호정(마리아), 신상희(율리아나), 오신균(다니엘라)

**유기서약자 (12 명):** 김연재(아그네스), 송경숙(스콜라스티카), 조정순(미카엘라), 오귀주(카타리나), 이두희(그레고리오), 이은자(다미아나), 최영(릿다), 이숙(비비안나), 성향경(비비안나), 원순자(안나), 윤미숙(글라라), 백영숙(소피아)

**종신서약자 (9 명):** 한병철(안드레아), 남상갑(요셉), 원명희(모세), 원황용(데레사), 한옥례(세실리아), 전진문(베네딕도), 김애경(모니카), 유선영(비비안나), 이유미(아네스)

- 8/15, 오후 2 시 파견미사 중에 거행되는 서약식에 가족, 친지, 회원 여러분을 초청하오니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반기 캠페인 주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를 매일같이 상기하며 감사와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 기도 부탁 드립니다

- 7/15, 이경자(데레사) 자매님께서 허리에 심었던 못 2 개를 빼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하여...
- 아씨시에서 개최되는 세계 청소년 대회에 7/25, 출발하시는 리따 수녀님과 자녀들이 주님의 은총 속에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오도록...
- 병환 중이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회원들을 위하여...

### 사부님 영성의 향기 (14)

‘억지로 기도하기’

봉사자 이선영 하상 바오로 ofs

프란치스코는 성무일도를 경건하고도 열심히 바쳤다. (종략) 그는 걸어서 세상을 다닐 때에도 성무일도를 바치기 위하여 언제나 발길을 멈추었다.

그가 어느 날 로마에서 돌아올 적에 계속하여 비가 내렸다. 그는 성무일도를 바치기 위해서 말에서 내렸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는 통에 그는 비로 흠뻑 젖어 버렸다. 그가 언젠가 이야기하였다: “장래에 벌레의 먹이가 되어 버릴 육신도 조용하게 그 음식을 취합니다. 하물며 영혼이야 실로 평화롭고 고요한 가운데 그 음식인 하느님을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2 켈라노 96)

작년 2월 23일, 봉사자로 선출되고 나서 전임 봉사자와 평의회원들이 잘 이끌어 왔던 형제회가 잘못 되거나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에 새벽 4시경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성무일도 바치고 주님께 기도로써 매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목주기도 등을 통하여 자주 기도를 바쳤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성무일도와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성장에는 진보 아니면 퇴보만 있을 뿐”이라는 리따 수녀님 말씀 그대로 매일 매일 화분에 물을 안 주면 꽃이 시들듯이 기도를 게을리하니 내 영혼이 시들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프란치스칸들은 기도와 관상이 자신의 온 존재와 활동의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하고(회칙 제 8 조), 성무일도 바치는 것을 특전으로 여겨야 하는데(회헌 제 14 조), 막상 생업에 종사하면서 기도 에 시간 내기가 그리 쉽지는 않지요. 그래도 사부님의 모범을 본 받아 복음적인 삶과 완덕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기도는 밥과 같은 것이니 기도와 관상 그리고 성무일도가 습관이 될 때까지 억지로라도 매일 일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여 맛 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 안 하는 프란치스칸은 프란치스칸이 아니다” 라고 하면 너무 비약일까요? 오상의 비오 신부님 말씀을 인용하며 끝 맺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바지 못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적게 기도하는 사람은 위태롭습니다. 사람들이 어쩔 위안을 둘 수 있는 말입니까? 우리 영혼에 그토록 소중한 그분께 말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포옹하십시오.”**

## 회계 보고

2009년 6월 30일 현재

| 내역        | 전월<br>이월금 | 월<br>수입금 | 월<br>지출금 | 현<br>잔고  |
|-----------|-----------|----------|----------|----------|
| 회비        | 8,449.39  | 1,071.36 | 1,628.20 | 7,892.55 |
| 선교<br>후원금 | 5,619.28  | 380.00   | 0.00     | 5,999.28 |
| 도서<br>구입  | 3,264.47  | 79.00    | 2,140.05 | 1,203.42 |

## “고맙습니다”와 “사랑합니다”

이용란 마가렛 ofs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잠시 돌이켜보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많이 고맙습니다 와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살았는가 곰곰이 생각해본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그런대로 자주하면서 살아온 것 같은데,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웬지? 거의 하지 못하고 어린 시절을 살아온 것 같다.

한국 사람들은 원래 표현을 잘못하고 우리 문화가 그러다 보니 자연히 그런 사회구조에 어울려 저절로 그렇게 된 것 같다.

그러나 캐나다라는 나라로 이민 와 살다 보니 완전히 한국과는 반대되는 것 표현과 뜻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나라, 이 곳 사람들은 습관처럼 사랑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까지 너무나도 자주 쓰고 있다. 우리는 이런 점을 본 받아야 하겠다. 더욱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고 실천해야 하는 신앙인으로써 사랑합니다를 더 많이 하는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해본다. 내 가족과 이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겠으며 아무리 많은 기도와 희생 봉사를 열심히 하여도 우리 삶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참 신앙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가끔 정말로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 만큼 사랑은 실천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기쁜 마음으로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진실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참 기쁨으로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것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그리스도께 의지하고 노력하는 프란치스칸이 되어야 하겠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느님 고맙습니다.

